

취학 전 아동의 성격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연숙·이명희*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과 조교수·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Effects of Preschool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and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on Clothing Behaviors

Yeon-Sook, Hong · Myoung-Hee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hejuHalla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and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on clothing attitudes and color evaluation of preschool children. The subjects for this study consisted of 360 five-year-old children who were attending a preschool and their parents in Cheju Island, Korea.

Employed mother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 on love acceptance attitude than unemployed mothers did. Female children had more conservative attitude on clothing sex-role than male children did. There were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and preferred clothing colors. Male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prefer blue, red, green, and prussian blue for the colors of clothing than were female children, while female children liked pink, yellow, and orange more than male children. Boys selected blue, and girls selected pink as the most preferred clothing color. Overall, preschool children chose red as the most preferred color, black as the most disliked color.

The children's sex identification by clothing color was highly consistent with the conservative attitude of adults for all colors. That is, preschool children identified pink, red, and yellow with female color, while prussian blue, blue, and green with male color.

Clothing interest of boys was influenced by the mother's state of employment and academic trait($R^2 = .076$). The boys high in academic trait and whose mothers did not have job were high in clothing interest. Clothing management of boys was influenced by emotionality and love · acceptance rearing

attitude($R^2=.176$). Clothing independence of boys was influenced by authority · control rearing attitude. Clothing sex-role of boys was influenced by familism trait. The boys high in familism trait had open-hearted attitude in clothing sex-role. Clothing interest of girls was influenced by academic trait, clothing management by sociality, clothing independence by emotionality, and clothing satisfaction by familism trait. Therefore, the more positive personality children had, the higher clothing interest and the more desirable clothing attitudes they had.

Key Word : preschool children, clothing attitudes, preferred color, personality traits, child-rearing attitudes, sex identification ; 취학 전 아동, 의복태도, 선호 색, 성격특성, 양육태도, 성 구분

I. 서 론

의복행동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주요 변인 중의 하나로서 오래 전부터 성격이 연구되어 왔으며, 의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의복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강혜원, 1995). 성격과 의복행동간의 상관 연구에서는 특정한 성격 특질과 의복행동 변인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 즉 내-외향성과 의복(강혜원, 1974; Radeloff, 1991), 남향성-여향성과 의복(Compton, 1962; Davis, 1985; 유경숙, 이명희, 1997), 사려성-충동성과 의복(신혜봉, 임숙자, 1987) 등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에서 의복태도, 의복의 색, 스타일, 무늬 선호도 등의 다양한 의복 변인들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아동의 성격과 의복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시 된다. 따라서 아직 미분화된 성격이기는 하나 취학 전 아동들의 성격특성이 의복태도 및 색 선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성격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폭 넓게 이해할 수 있

우리라고 본다.

한편, 취학 전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가운데 가정은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사회 단위이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를 양육태도(rearing attitude)라고 하며, 양육태도는 일종의 문화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종혜(1980)는 양육태도를 민주·자율 대 권위·통제 차원의 양육태도와 애정·수용 대 적대·거부 차원의 양육태도로 구분하고 민주·자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장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하였으며, 우리 나라 부모들은 자녀에 대하여 대체로 애정·수용적이면서도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부모 또는 양육자는 영아기에 대부분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아동이 점차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그 다음은 통제자, 그리고 사회화 주관자의 역할을 하게 되며,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사회화 주관자들이 유도하는 가치 체계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취학 전 아동의 성격 및 가치의 발달뿐만 아니라 의복의 특정한 태도 및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격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취학 전 아동의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아동의 의복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의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취학 전 아동들의 의복행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동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적응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지침을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부모에게는 질문지법을 사용하고, 아동은 표준화된 면접법을 채택하여 취학 전 아동들의 의복행동과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취학 전 남녀 아동의 성격특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의복태도와 색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과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한다.

둘째, 아동의 성별과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의복태도 및 색 평가를 파악한다.

셋째, 아동의 의복 색을 통한 성 구분 능력을 조사하며, 의복 색 성 구분 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넷째, 아동의 성격특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의복태도 및 의복 색 선호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아동의 성격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아동의 의복태도에 동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의 의복행동

1) 아동의 의복태도

아동에게 있어서 2세에서 6세 사이의 시간은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2세까지 아동은 주로 가족에게 의존하지만 3~4세가 되면 유치원이나 이웃에서 다른 아동들과 접촉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매우 자기 중심적일 뿐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며, 타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가장 손쉬운 방법중의 하나가 의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아이들은 특히 그 옷이 새 것이면 어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밝은 색이나 장식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알게 된다(Ryan, 1966).

아동의 의복태도 중에서 의복 흥미성, 관리성, 자립성, 동조성, 의복 성역할, 의복 만족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복 흥미성은 의복에 대한 관심, 선택 및 의복 착용에 관한 흥미를 뜻한다. Hurlock(1978)은 아동이 동성과의 놀이가 증가하면서 외양상의 관심이 생기고 의복에 대한 흥미도 점차적으로 생기며, 의복이 욕구를 만족시켜 줄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진다고 하였다. 아동이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할 때 그가 입고 싶어하는 의복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의 의복에 대한 흥미를 높여준다. 또한 아동은 새 장난감을 좋아하듯 새 옷을 좋아하며, 의복 색에 특히 흥미를 갖고 있어서 좋아하는 색이면 자신에게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그 옷을 좋아하고 장식적이지 않은 옷과 부드러운 옷감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김민자(1973)는 취학 전 아동들은 자아표현의 수단으로서 의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여아가 남아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도가 더 크다고 하였다. 이미연(1989)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의복 흥미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여아의 의복이 남아의 의복보다 덜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여아는 어린 시절부터 외모가 돋보이는 의복에 더욱 흥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의복 관리성은 의복의 정리, 청결 및 세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의복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아동들은 의복 관리성에는 비교적 관심이 낮아 의복에 흥미를 보이는 것만큼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지 못하며, 의복의 청결에는 관심이 없는 편이다(이인자, 1997). 학령기 아동은 중하류층 아동이 중상류나 상류층 아동보다 의복 관리를 일찍이 시작하고 의복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주의

를 기뻐하며(Ryan, 1966), 여아가 남아보다(이미연, 1989), 도시 아동이 농촌 아동보다 의복 관리를 더 잘 하는 편이었다(강은숙, 1980).

의복 자립성은 아동이 의복의 선택이나 입고 벗기를 스스로 하는 정도를 뜻한다. 김민자(1973)는 취학 전 아동은 스스로 의복을 입고 벗을 줄 알며, 의복을 스스로 선택하여 입기 원하는 자립성이 있다고 하였다. 단순한 형태의 의복은 아동의 자립성 발달에 높은 기여를 하며 스스로 입고 벗기 쉽게 디자인 된 의복은 아동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형태가 복잡한 의복보다는 활동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의복이 자립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의복 동조성은 친구들이나 소속집단의 의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자 하는 태도를 뜻한다. Hurlock(1978)은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서 집단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들 동료와 비슷한 의복을 입기 원한다고 하였다.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박정애(1984), 고은기(1987)의 연구에서는 의복 동조성의 성차가 없었으나, 1, 2,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미연(1989)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의복 동조성이 높았고 상류층 아동이 하류층보다 의복 동조성이 높았다. 이것은 학력이나 경제 수준이 높은 부모는 친구들과 비슷한 의복을 착용하도록 하여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배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의복 성역할 태도는 남자다운 의복, 여자다운 의복을 선호하는 것을 뜻하며, 개방적 보수적 태도로 나타난다(변정은, 이명희, 1989). 인지 발달이론에 따르면 3세 경에 유아는 최초로 자신을 남자 또는 여자로 범주화하는 능력인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을 발달시키게 되고, 5~6세 경이 되면 의복, 머리모양, 또는 행동이 달라지더라도 결코 변화하지 않는 성의 불변적 특성인 성 항상성(gender constancy)을 획득하게 된다(주연희, 1991). 우리 나라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5~6세에 가장 강한 경향을 보이며, 아동 후기에 갈수록 성역할 개념은 보다 융통성

을 갖는 것으로 밝혀져 서구 아동의 성역할 발달 양상과 일치된다(정선숙, 1992). 취학 전 어린이들은 가끔 남이는 아버지와 같은 옷차림, 여이는 어머니와 같은 옷차림을 해봄으로써 아버지 어머니와의 동일시 감정이 성숙되고 성역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된다. Davis(1985)는 아동이 의복으로 동료집단에 수용되기를 원하며 동료집단에 동조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복이 자기 성에 부합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으며, 김민자(1973)는 취학 전 아동들은 성을 구분할 줄 알고, 그에 맞는 의복을 입기를 원하며, 하류층의 아동이 자신의 성에 맞는 의복을 입으려는 성향이 더 강하다고 하였다.

의복 만족도는 소유한 의복이나 착용한 의복에 대한 만족 정도를 뜻한다. 아동들은 성별에 따른 의복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으나(변정은, 이명희, 1989), 농촌 아동이 도시 아동보다 의복 만족도가 낮았다(강은숙, 1980; 권향원, 1988). 유영미(198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아동은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아동보다 의복 만족도가 낮았으며,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의복 만족도가 높았으나 최상류층 아동은 오히려 중상류층보다 의복 만족도가 낮았다.

2) 아동의 색 선호

취학 전 아동이 선호하는 색은 빨강, 노랑, 주황인 난색 계통이고, 싫어하는 색은 검정, 황토, 남색이며, 이러한 색채 선호성은 남녀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다(김민자, 1973). 김정립(1989)의 연구에서 취학 전 아동은 6~7가지 색채를 즐겨 사용하였으며, 선호하는 색은 노랑, 빨강, 파랑, 주황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색을 가장 싫어하였다.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려성-충동성 성향과 색 선호와의 관련 연구를 한 신혜봉, 임숙자(1987)의 연구에서는 사려성 집단의 남이는 파랑계열, 여이는 파스텔색 계열을 선호하고, 남녀 아동 모두 빨강계열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려성 집단의 남녀 아동

모두 유사 배색을, 충동성 집단의 남녀 아동 모두 빨강계열을 선호하고 무채색 계열을 싫어하였다.

김수희(1986)의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기호색 경향은 노랑, 주황, 빨강의 순이며, 학년별, 성별에 관계없이 검정과 남색을 싫어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색, 난색, 중간색 기호 비교에서는 난색에 대한 기호도가 지배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아동들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명희(1989)의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은 의복 색으로서 남아가 여아보다 파랑과 남색을 더 선호하였고, 여아는 남아보다 분홍, 빨강, 주황, 노랑을 더 선호하였다. 또한 여아는 남아보다 선호하는 의복 색의 수가 더 많았다.

3) 의복 색을 통한 성 구분 능력

아동들은 의복이나 머리 모양 등과 같은 구체적인 주변 단서들에 의존하여 성 구분을 하며, 남성과 여성의 성 구분을 할 때는 의복을 주요한 단서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2살이나 3살 된 어린이들은 그들이 관찰하는 사람들의 성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 식별(gender labels)의 형태로 의복을 사용한다(Kaiser, 1985).

Kohlberg(1966)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만일 남자애들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남자의 복장을 한다면 그 여자애가 남자애로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4~5세의 아동은 남자애가 여자애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6~8세의 아동은 머리모양, 의복 등을 성별의 구분 단서로 사용하였으며 6~8세의 아동은 성 항상성의 발달로 이러한 현상이 약화된다고 하였다(주연희, 1991).

Picariello, Greenberg & Pillemer(1990)는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성 관련 색채 고정 관념을 알아보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성인들에 의해서 가장 여성적, 남성적으로 평가된 3가지색을 가지고 아동이 장난감 동물의 성을 구분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성인들에 의해서 남성적인 색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수컷으로 평가한

아동의 비율은 갈색이 91%, 남색이 85%로 나타났으며, 여성적인 색으로 지정된 동물을 암컷으로 평가한 아동의 비율은 연한 핑크색이 94%, 밝은 핑크 79%, 연한 자주색 79%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2. 성격과 의복행동

많은 성격이론 중에서 의복행동과 관련지어 연구된 것은 특질론이다. Cattell은 특질이란 성격구조를 형성하는 요소이며, 행동으로부터 유추되는 정신적 구조로서 한 개인에게 여러 상황 또는 상이한 때에 일관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성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정희 등, 1998). 송인섭(1997)은 취학 전 아동의 성격 측정을 위하여 '유아성격검사지'를 개발하였는데, 이 검사지에서 의미하는 성격의 의미는 유아가 아직 행동이 분화되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서 특성본보다는 한 현상을 어떻게 보며 그 현상에 관련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의 의미는 한 현상과 관련된 자기를 비취볼 때 자신을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냐로 분류해서 한 개인의 성격을 보고자 함을 의미한다.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 인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박찬부·현온강(1984)은 사려성이 높은 아동은 의복의 편이성, 심미성, 정숙성이 높고, 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의복에 대한 흥미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활동적이고 사회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의복의 흥미성, 편이성, 심미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권향원(1988)의 연구에서는 의복의 성역할 측면이 개방적인 아동은 안정성과 사회성이 높았고, 의복에 대한 만족도와 관리성이 높은 아동은 남녀 아동 모두 안정성, 사회성, 책임성, 우월성이 높았다. 의복에 대한 흥미가 많은 아동은 남녀 아동 모두 활동적이고 책임감, 안정성, 우월성이 낮았으며, 의복 자립성은 안정성, 사회성, 책임감이 높은 남아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유영미(1988)의 연구에서는 사회

성이 높은 아동은 의복 만족도가 높았고, 변정은, 이명희(1989)의 연구에서 충동성은 의복 흥미성과 정적인 상관, 만족도, 관리성 및 자립성과는 부적 상관에 있었다.

최점순(1988)의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선호색과 지배성, 사회성이 관계가 있었고, 혐오색과 활동성, 사회성이, 선호 의복 색과 사려성이, 소유 의복 색과 안정성 및 사회성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여러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색채와 성격과의 관계를 연구한 Compton(1962)은 강한 명도 대비와 한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사회성이 높다고 하였고, Ford와 Drake(1978)는 어두운 색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밝은 색을 선호한 사람들보다 훨씬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정순(1973)은 적-황계통의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녹-청계통의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향적이라고 하였다.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복행동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게 기대하는 방식에 따라 의사소통을 하며 아이의 잠재적인 잘못된 행동이나 직접적인 나쁜 행동에 대하여 훈육형태를 취하게 되고 부모의 양육형태는 바로 이 훈육형태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김현택 등, 1998). 한중혜(1980)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수용적인 양육태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이원영(1983)은 교육정도가 높은 어머니는 거부, 통제외의 정도가 덜한 편이며,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정은, 이명희(1989)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민주-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의복행동 변인들과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애정-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의복 만족도 및 관리성과 정적인 상관에 있었고, 성역할 태도와는

부적인 상관에 있었다. 즉, 어머니가 애정-수용적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할수록 아동은 의복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며 의복관리를 더 잘하며, 자기 성에 맞는 의복을 입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애정-수용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여자 아동은 의복 흥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숙경(1990)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의복행동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복착용 동기에 있어서 애정·자율지향적 태도가 정숙성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심미성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디자인 선호에 있어서 스포티하고 활동적인 디자인 선호는 애정지향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성취·합리지향적인 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명희(1999)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친애 및 자율성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의복 만족도가 높았으며, 거부성향이 높은 가정의 여학생은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의 성향이 자녀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측정도구

1) 아동용 질문지

아동의 성격은 송인섭(1997)이 개발한 “유아용 성격검사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검사의 문항 수는 26개로서 요인분석을 통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것이다. 하위척도별 문항 수는 학문성 7개, 사회성 7개, 가족성 6개, 정서성 6개이며 신뢰도는 .77, .69, .80, .83이었다. 각 문항은 긍정 문항에서 웃는 얼굴과 ‘예’에 응답하면 2점을 주고 쩡그린 얼굴 또는 ‘아니오’에 응답하면 1점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학문성은 공부하는 활동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이 점수가 높으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책읽기, 탐구하기 등을 좋아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성은 부모, 교사, 또래집단에 대한 평가에 의해 형성되는 시각으로부터 나온다. 사회성은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협동적이고 대응 적응성이 강한 특성을 말한다. 이 척도의 점수가 낮으면 수줍음이 많고 사회적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족성은 유아가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를 나타내는 성격특성이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가족생활에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행동하며, 점수가 낮으면 가족생활의 적응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정서성은 정서와 신체에 관련된 반응으로 이 점수가 높으면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억제하고, 어떤 현상을 의지적으로 다루려는 경향과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수가 낮으면 자제력이 결여되어 있고 성급하며 행동이 기분에 좌우되는 경향이 높고 신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고 해석된다.

아동의 의복행동은 의복태도와 색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의복태도는 선행연구(고은기, 1987; 이명희, 1987b; 권향원, 1988; 이미연, 1989)를 기초로 의복태도의 하위차원과 문항을 선정하여, 유아들에게 응답하기 용이하도록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측정 도구는 흥미성, 성역할, 관리성, 동조성, 자립성, 만족도의 6개 변인에 각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예', '아니오', '모르겠다'의 3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질문지는 81명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해의 어려움이나 흥미성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태도 측정 도구는 척도의 구성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자료를 기초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

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처음에 설정한 대로 요인의 수를 6개로 정하였다. 1차 요인분석에서 요인과 문항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은 문항 4개를 제외하고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6개의 요인들은 각각 의복 흥미성 4문항, 의복 성역할 3문항, 의복 관리성 3문항, 의복 동조성 4문항, 의복 만족도 2문항, 의복 자립성 3문항이었다. 총 19개의 문항이 선택되었으며, 변량의 61.7%가 설명되었다. Cronbach의 alpha 신뢰도 값을 요인의 순서대로 보면 .71, .73, .70, .63, .57, .52로 나타났다. 요인 5와 6의 경우 신뢰도 값이 다소 낮기는 하나 구성 문항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값으로 판단된다. 각 요인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여 의복 성역할 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임을 의미한다.

아동의 색 평가는 선호색, 혐오색, 의복 색 선호, 의복 색을 통한 성 구분 능력을 조사하였다. 색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삼원특수지 상사의 Colors Charts 220개 중에서 빨강(Y100 M100), 노랑(Y100), 초록(Y100 C100), 파랑(C100), 보라(M80 C80)의 5가지 기본 색과 중간색인 주황(Y80 M60), 남색(M40 C100), 분홍(M40)의 3가지색에 무채색인 흰색과 검정을 합쳐 모두 10가지색을 선정하였다. 10가지 색지는 하드 보드지(60×40cm) 위에 7×10cm의 크기로 잘라 2열로 배열하여 가장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 및 의복으로 착용할 때 좋아하는 색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의복 색을 통한 성 구분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 관련 의복 색의 고정관념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Picariello, Greenberg & Pillemer(1990)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제주한라대학의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색 선호도에서 사용한 동일한 10가지 색지를 보여주고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남성적, 2:남성적, 3:중성적, 4:여성적, 5:매우 여성적)로 10가지색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장 여성적으로 평가된 3가지색은

<표 1> 의복태도의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h ²
	흥미성	성역할	관리성	동조성	만족도	자립성	
○○이는 친구들이 새 옷 입는 것을 보면 부러운가요?	.80	.17	.07	-.01	.13	-.14	.71
○○이는 새 옷을 입었을 때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칭찬 해 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가요?	.77	.13	-.01	.01	.05	-.07	.62
○○이는 어른들의 옷을 입어보고 신발도 신어보는 것이 재미있어요?	.75	-.08	.15	.04	.14	-.03	.61
○○이는 이웃 저웃을 갈아입고 ○○이의 모습을 거울 에 비춰보는 것이 재미있어요?	.56	.07	-.28	.11	-.13	.13	.44
남자 아이들이 분홍색 옷을 입으면 여자같이 보인다고 생각하나요?	.19	.82	-.07	.06	-.03	.03	.71
○○이는 여자 아이들이 머리가 짧으면 남자같이 보여 서 싫은가요?	-.01	.78	.07	-.05	.03	-.02	.62
○○이는 여자 아이들은 언제나 여자답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 하나요?	.12	.68	-.02	.27	.02	-.02	.56
○○이는 더러워진 옷을 직접 빨래통에 갖다 넣어요?	-.11	.08	.81	-.07	-.03	.17	.71
○○이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옷을 벗어서 정리하나요?	-.03	-.09	.80	.05	-.12	.16	.69
○○이는 옷을 깨끗하게 입으려고 노력하나요?	.15	-.01	.71	-.01	.04	-.11	.54
○○이는 만약 엄마가 옷을 사주신다면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입는 옷 을 사주었으면 하나요?	.18	.18	.06	.73	.05	.04	.60
친구들이 많은데서 ○○이만 다른 모양의 옷을 입고 있으면 기분이 나쁜가요?	-.09	.34	.07	.72	.10	.13	.67
친구가 새옷 입은 것을 보면 ○○이도 새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드 나요?	.02	-.03	-.09	.66	-.25	-.17	.54
○○이는 친구들과 같은 옷을 입는 것이 싫은가요?(R)	.00	-.32	.07	.61	.38	-.03	.62
○○이는 입고 있는 옷 모양이 싫은가요?(R)	-.11	-.14	-.13	.05	.82	.13	.73
○○이는 지금 입은 옷이 마음에 드나요?	.06	.19	.03	.09	.76	-.12	.64
○○이는 유치원에 갈 때 어머니가 옷 입는 것을 도와 주시나요?(R)	.09	-.04	.01	-.04	-.12	.70	.51
○○이는 양말을 혼자서 찾아 신는가요?	-.20	-.15	.02	-.03	.30	.69	.60
○○이는 혼자서 자기 옷을 입을 수 있나요?	-.18	.27	.19	.05	-.09	.69	.62
고유치	2.92	2.18	2.05	1.74	1.51	1.34	
설명변량	15.4	11.5	10.8	9.2	8.0	7.0	
누적변량	15.4	26.8	37.6	46.7	54.7	61.7	
신뢰도	.72	.73	.70	.63	.57	.52	

R: 거꾸로 계산된 문항

분홍(M=4.95), 빨강(M=4.70), 노랑(M=4.10)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남성적으로 평가된 3가지색 은 남색(M=1.30), 파랑(M=1.80), 초록(M=2.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 색 3가지, 여성 색 3가지를 아동의 성 구분 능력을 알아보는 데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아동들에게 흰색 바탕의 20×15cm의 카드 위에 분홍, 빨강, 노랑, 남 색, 파랑, 초록색 옷을 입은 기어가는 어린아이의

그림을 보여주고 여아인지, 남아인지를 구분하도록 질문하였다. 아기의 모습은 광고디자이너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중성적인 특징을 갖도록 하였다.

2) 부모용 질문지

부母的 양육태도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로써 한중혜(1980)가 사용한 2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한 문항만으로 재구

성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요인 1은 10개 문항으로서 애정·수용-적대·거부적 차원으로, 요인 2는 9개 문항으로서 민주·자율-권위·통제적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1, 2의 고유치는 4.02, 2.75였고, 누적변량은 35.6%였다. 신뢰도는 각각 .82, .70으로 나타나 본 도구의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는 양호한 편이었다. 각 차원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수용적 태도와 권위·통제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아동의 성별과 어머니의 직업유무를 조사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의 9개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 360명과 그들의 부모 360명이었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88명, 여아가 172명 있었고,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취업주부가 191명, 비취업주부가 169명이었다.

본 조사의 기간은 1998년 6월이었으며, 부모에게는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동에 대한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개별적인 면접법이 이루어졌다. 특히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할 때 면접 전과 면접 도중 검사 대상 유아와의 우호적인 관계(rapport)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t검증, χ^2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의복행동

성별 및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성별 및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

성별, 직업		양육태도	애정·수용 -적대·거부	민주·자율 -권위·통제
		남		37.63
성 별	여		37.72	27.48
	t		-.19	-.42
어머니의 직업유무	유		38.14	27.48
	무		37.14	27.28
	t		2.30*	.46

*p<.05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애정·수용-적대·거부적 양육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어머니보다 더 높은 애정·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적지만 자녀들에게 좀 더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임으로써 양보다는 질적으로 보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오늘날 남녀평등 경향과 사회적으로 성역할 태도가 개방화되면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면에서도 성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성별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아동의 의복태도는 성역할에서만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의복 성역할 태도가 높았는데, 이것은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의복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임을 나타낸다. 그 밖에 다른 의복태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가 남아보다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이었던 것은 취학 전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성역

<표 3> 성별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

의복태도 \ 성별	남	여	t
흥미성	8.83	8.90	-0.31
성역할	5.95	6.81	-4.34**
관리성	8.26	8.45	-1.41
동조성	8.56	8.45	.49
만족도	5.45	5.50	-0.44
자립성	7.94	8.01	-0.55

**p<.01

할 개념이 더욱 발달하여 의복 착용시 자기 성에 맞는 의복을 입고자 하는 태도가 높음을 뜻한다. 이것은 선행연구(이명희, 1987a)에서 학령기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의복 성역할 태도가 개방적이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아의 성역할 고정 관념이 5-6세 경에 가장 강한 경향을 보인다는 내용(정선숙, 1992)에 비추어 볼 때, 5세 아동은 여아가 남아보다 성숙한 태도를 지니므로 여아가 전통적인 성역할을 뚜렷이 획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여아의 의복 성역할태도가 더 보수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5세경의 아동이 성정체감을 확립하는 초기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취학 전 아동이 성장하면서 의복을 통해 성정체감

을 확립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의복태도의 차이를 t검정으로 조사하였으나, 의복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 및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선호색, 혐오색, 의복 색 선호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남아는 여아보다 파랑, 초록, 남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는 분홍과 노랑을 남아보다 더 선호하였다. 남아의 선호색 순위는 빨강, 파랑, 초록의 순이었으나, 여아는 분홍, 노랑, 빨강의 순이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선호색의 순위를 보면 아동들은 빨강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에 노랑, 분홍의 순으로 선호하였는데, 이것은 김민자(1973), 김병숙(1981), 김정림(1989)의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며, 특히 빨강은 취학 전 아동들이 매우 선호하는 색이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표 4>에서 성별과 의복 색 선호와의 관계를 보면 남아는 여아보다 파랑, 빨강, 초록, 남색 의복을 더 선호하였고, 여아는 남아보다 분홍, 노랑, 주황을 의복 색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남아가 의복 색으로 가장 선호하는 색은 파랑이었고 여

<표 4> 성별과 선호색 및 의복 색 선호와의 관계

() = row%

구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분홍	흰색	검정	전체	χ^2	
선호색	남	54 (28.7)	5 (2.7)	16 (8.5)	20 (10.6)	53 (26.2)	14 (7.4)	8 (4.3)	4 (2.1)	7 (3.7)	7 (3.7)	188 (100.0)	$\chi^2=154.89^{**}$ df=9
	여	39 (22.7)	9 (5.2)	54 (31.4)	3 (1.7)	1 (0.6)	0 (0.0)	4 (2.3)	58 (33.7)	3 (1.7)	1 (0.6)	172 (100.0)	
	전체	93 (25.8)	14 (3.9)	70 (19.4)	23 (6.4)	54 (15.0)	14 (3.9)	12 (3.3)	62 (17.2)	10 (2.8)	8 (2.2)	360 (100.0)	
의복 색 선호	남	37 (19.7)	14 (7.4)	13 (6.9)	24 (12.8)	46 (24.5)	13 (6.9)	13 (6.9)	6 (3.2)	14 (7.4)	8 (4.3)	188 (100.0)	$\chi^2=107.30^{**}$ df=9
	여	18 (10.5)	24 (14.0)	40 (23.3)	9 (5.2)	9 (5.2)	0 (0.0)	10 (5.8)	47 (27.3)	15 (8.7)	0 (0.0)	172 (100.0)	
	전체	55 (15.3)	38 (10.6)	53 (14.7)	33 (9.2)	55 (15.3)	13 (3.6)	23 (6.4)	53 (14.7)	29 (8.1)	8 (2.2)	360 (100.0)	

**p<.01

<표 5> 성별과 혐오색과의 관계

() = row%

구분	노랑	파랑	남색	보라	분홍	흰색	검정	전체	χ^2
남	10 (5.6)	6 (3.4)	17 (9.6)	7 (4.0)	24 (14.1)	16 (9.0)	97 (54.8)	177 (100.0)	$\chi^2 = 36.66^{**}$ df=6
여	1 (.6)	16 (9.8)	18 (11.0)	11 (6.7)	3 (1.9)	4 (2.5)	110 (67.5)	163 (100.0)	
전체	11 (3.2)	22 (6.5)	35 (10.3)	18 (5.3)	27 (7.9)	20 (5.9)	207 (60.9)	340 (100.0)	

**p<.01

아가 의복 색으로 가장 선호하는 색은 분홍색이었다. 이것은 색을 통해 성역할이 뚜렷이 구분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취학 전 아동은 의복 색을 택할 때 자신의 성에 적합한 색을 잘 인지함을 의미한다. 아동들은 의복 색으로 빨강과 파랑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에 분홍과 노랑을 선호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호색에서 노랑을 파랑보다 더 좋아하였지만 의복 색으로는 노랑을 파랑보다 더 좋아하지 않았고, 남아는 선호색으로는 빨강을 가장 좋아하였으나 의복 색으로는 파랑을 가장 좋아하는 것을 볼 때에, 취학 전 아동이 의복으로서 착용하고 싶은 색을 일반적인 선호색과 다르게 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표 5>에서 성별과 혐오색과의 관계에서는 빨강, 주황, 초록은 기대빈도가 5 미만으로 적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남아는 여아보다 분홍, 흰색, 노랑을 더 싫어하였으며, 여아는 남아보다 검정과 파랑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홍색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 여아들은 매우 선호하였지만 남아들은 싫어하는 색으로 평가되어 분홍이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색이라는 관념이 취학 전 아동들에게 잘 인지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검정은 다른 색에 비하여 월등하게 싫어하는 혐오색이었고 그 다음에 남아는 분홍과 남색을, 여아는 남색과 파랑을 싫어하였다. 이것은 최점순(1988)이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들이 검정과 남색을 싫어한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였다.

2. 의복 색을 통한 아동의 성 구분 능력

의복 색에 기초하여 아동이 성 구분을 성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지를 단일표본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의복 색을 통한 성 구분 능력 () = %

의복색	성구분	관찰빈도	기대빈도	χ^2
분홍	남성	61(16.9)	180	157.34**
	여성	299(83.1)	180	
빨강	남성	136(37.8)	180	21.51**
	여성	224(62.2)	180	
노랑	남성	78(21.7)	180	115.60**
	여성	282(78.3)	180	
남색	남성	308(85.6)	180	182.04**
	여성	52(14.4)	180	
파랑	남성	287(79.7)	180	127.21**
	여성	73(20.3)	180	
초록	남성	272(75.6)	180	94.04**
	여성	88(24.4)	180	

**p<.01

<표 6>에서 볼 때 아동들이 색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평가한 비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인들에 의해서 남성적인 것으로 지정된 3가지색에 대하여 아기를 남성으로 평가한 아동의 비율은 남색이 85.6%, 파랑이 79.7%, 초록이 75.6%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들이 여성으로 평가한 3가지 색에 대하여 아기를 여성으로 평가한 비율은 분홍이 83.1%, 빨강이 62.2%, 노랑이 78.3%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들은 전통적인 남성색, 여성색의 고정관념

과 일치되게 의복 색에 의해 남성과 여성을 분류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아동이 이미 5세경부터 의복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수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매우 어린 아동이 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속성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단서 중의 하나로서 색을 이용한다는 이론(Picariello, Greenberg & Pillemer, 1990)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유치원 아동들이 색으로 성을 구분하며, 색 고정관념이 유치원 시기에 형성되고 그것은 초기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의복 색을 통한 성 구분이 성별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χ^2 검증으로 조사하였는데,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홍, 빨강 초록의 성 구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분홍과 빨강은 남아가 남성으로 구분한 비율이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고, 초록은 여아가 남아보다 여성으로 구분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아보다 남아가 색에 의한 의복 성역할

<표 7> 성별과 의복 색 성 구분과의 관계 (%) =row%

색	구분	남성	여성	전체	χ^2
분홍	남	40(21.3)	148(78.7)	188	4.62*
	여	21(12.2)	151(87.8)	172	
	전체	61(16.9)	299(83.1)	360	
빨강	남	84(44.7)	104(55.3)	188	7.37**
	여	52(30.2)	120(69.8)	172	
	전체	136(37.8)	224(62.2)	360	
노랑	남	48(25.5)	140(74.5)	188	3.00
	여	30(17.4)	142(82.6)	172	
	전체	78(21.7)	282(78.3)	360	
남색	남	165(87.8)	23(12.2)	188	1.20
	여	143(83.1)	29(16.9)	172	
	전체	308(85.6)	52(14.4)	360	
파랑	남	153(81.4)	35(18.6)	188	.47
	여	134(77.9)	38(22.1)	172	
	전체	287(79.7)	73(20.3)	360	
초록	남	151(80.3)	37(19.7)	188	4.30*
	여	121(70.3)	51(29.7)	172	
	전체	272(75.6)	88(24.4)	360	

*p<.05, **p<.01

구분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3. 아동의 성격특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복행동과의 관계

아동의 성격특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복태도와 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남녀 아동 모두 학문성은 의복 흥미성 및 의복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학문성이 높을수록 의복의 흥미성과 만족도가 높았다. 즉 공부하기 좋아하는 남녀 아동은 의복에 대한 흥미와 의복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학문성은 남아의 경우 의복의 관리성 및 동조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어 남자 아동은 학문성이 높을수록 의복을 스스로 잘 정돈하며 친구들의 옷과 유사한 옷차림을 하고자 하는 태도가 높았다.

사회성 및 가족성은 남녀 모두 관리성 및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어 여러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가족생활의 적응도가 잘 되는 아동은 자기 의복의 관리를 잘하며 자신의 의복에 만족하는 편이었다. 가족성은 남아의 경우 의복 성역할과 부정적인 관계를 보여 남아는 가족생활의 적응이 높을수록 개방적인 의복 성역할 태도를 나타냈다.

정서성은 남아의 경우 의복 관리성 및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여아는 의복 자립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남아는 정서성이 높을수록 의복관리를 잘 하였고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여아는 정서성이 높을수록 스스로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았다. 성격과 의복태도와 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볼 때 학문성이 높은 아동은 의복 흥미가 높고, 아동이 여러 가지 성격특성에서 긍정적인 면을 지닐수록 특히 의복의 관리성과 의복 만족도에 바람직한 태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권향원(1988)의 연구에서 의복 만족도 및 관리성이 안정성, 사회성, 책임성, 우

<표 8> 아동의 성격특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복태도와의 관계

성격, 양육태도		의복태도		흥미성	성역할	관리성	동조성	만족도	자립성
		남	여						
성격특성	학문성	남		.201**	-.017	.311**	.212**	.361**	.100
		여		.181**	.044	.149	.047	.153*	.148
	사회성	남		.051	-.080	.239**	.131	.289**	.111
		여		-.096	-.094	.265**	.018	.179**	.140
	가족성	남		-.030	-.172*	.178**	.089	.203**	.150
		여		-.013	-.122	.173*	-.001	.196**	.134
	정서성	남		.101	-.054	.373**	.140	.326**	.121
		여		-.034	.086	.094	-.077	.135	.210**
양육태도	애정·수용-적대·거부	남		-.043	.030	.173**	-.112	-.065	.036
		여		-.071	.000	.002	-.039	.045	.105
	민주·자율-권위·통제	남		-.106	-.049	.008	.061	.068	.167*
		여		-.006	.122	.086	-.003	-.017	-.109

*p<.05, **p<.01

월성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아의 경우 부모의 애정-수용-적대-거부적인 양육태도는 관리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부모의 민주·자율-권위·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립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남아는 애정·수용적인 양육을 받을수록 의복 관리 능력이 높았으며, 권위·통제적 양육을 받을수록 의복 자립성이 높았다. 이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수용적인 아동이 의복관리를 잘 한다고 한 이명희, 변정은(1989)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의복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격특성과 의복 색 선호와의 관계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성과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사회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row %를 비교하여 보면 사회성이 낮은 집단은 사회성이 높은 집단보다 빨강과 파랑을 더 선호하였고, 사회성이 높은 집단은 주황, 보라, 남색을 더 선호하였다. 따라서 사회성이 낮은 아동은 빨강, 파랑과 같은 1차색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외향적인 사람이 밝고 선명한 색을 선호했다는 선행연구(Munzert, 1980)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성격과 선호색과의 관계를 연령별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표 9> 사회성과 의복 색 선호와의 관계

()=row%

사회성	색											χ^2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분홍	흰색	검정	전체	
낮음	20 (22.0)	7 (7.7)	14 (15.4)	8 (8.8)	19 (20.9)	1 (1.1)	1 (1.1)	14 (15.4)	4 (7.4)	3 (3.3)	91 (100.0)	$\chi^2 = 17.58^*$ df=9
높음	34 (12.7)	31 (11.6)	38 (14.2)	25 (9.4)	36 (13.5)	12 (4.5)	22 (8.2)	39 (14.6)	25 (9.4)	5 (1.9)	267 (100.0)	
전체	54 (15.1)	38 (10.6)	52 (14.5)	33 (9.2)	55 (15.4)	13 (3.6)	23 (6.4)	53 (14.8)	29 (8.1)	8 (2.2)	358 (100.0)	

*p<.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색 선호와의 관계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4. 아동의 의복태도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아동의 성격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동시에 아동의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을 분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독립변인은 4가지 성격특성, 2가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직업유무로서 모두 7개 변인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 변인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으므로 직업이 있는 경우를 1점, 직업이 없는 경우를 0점으로 하였다.

<표 10>에서 볼 때 남아의 의복 흥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학문성의 특성이었으며 2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7.6%였다. 여아의 경우는 학문성만이 흥미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4%로서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남아는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와 학문성이 높을수록 의복 흥미성이 높았고, 여

아는 학문성이 높을수록 의복 흥미성이 높았다.

의복 성역할은 남아의 경우에 가족성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2.9%였고, 여아는 모든 독립변인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설명력은 낮았으나 남아는 가족성이 긍정적일수록 의복 성역할 태도가 개방적이었다.

의복 관리성은 남아의 경우 정서성과 부모의 애정·수용-적대·거부적 양육태도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17.6%였다. 여아의 경우에는 사회성이 관리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7%였다. 즉 남아는 정서성이 높으며 부모가 애정·수용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의복 관리성이 높았으며, 여아는 사회성이 높을수록 의복 관리성이 높은 편이었다.

의복 동조성은 남아의 경우에 학문성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4.1%였으며, 여아의 경우에는 모든 독립변인이 의복 동조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남아의 경우에만 학문성이 높을수록 의복 동조성이 높았다.

의복 자립성은 남아의 경우에 민주·자율·권위·통제적 양육태도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2.5%로 매우 낮았고, 여아는 정서성이 유의

<표 10> 아동의 의복태도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성별	종속변인 (의복태도)	독립변인	R ²	b	beta	t	constant	overall F
남	흥미성	어머니의 직업유무	.044	-.869	-.197	-2.739*	4.806	7.737**
		학문성	.076	.333	.178	2.572*		
	성역할	가족성	.029	-.435	-.172	-2.337*	10.926	5.460*
	관리성	정서성	.140	.609	.382	5.644**	-1.005	19.220**
		애정·수용-적대·거부	.176	.062	.190	2.805**		
	동조성	학문성	.041	.359	.203	2.772**	3.773	7.682**
자립성	민주·자율·권위·통제	.027	.049	.164	2.235*	6.632	4.997*	
만족도	학문성	.146	.348	.382	5.552**	.859	30.828**	
여	흥미성	학문성	.034	.369	.185	2.444*	3.970	5.971*
	관리성	사회성	.057	.260	.239	3.191**	5.051	10.181**
	자립성	정서성	.044	.333	.210	2.768*	4.171	7.663**
	만족도	가족성	.039	.211	.197	2.605*	3.073	6.784*

*p<.05, **p<.01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4%였다. 따라서 남아는 영향력은 낮았으나 권위·통제적 양육을 받을수록 의복 자립성이 높았으며, 여아는 정서성이 높을수록 의복 자립성이 높았다.

의복 만족도는 남아의 경우 학문성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14.6%였고, 여아는 가족성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3.9%였다. 즉 남아는 학문성이 높을수록, 여아는 가족성이 높을수록 의복 만족도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의 성격 및 부모의 양육태도는 여아보다 남아의 경우 의복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 특히 남아는 의복 흥미성이 높았으며, 남아는 의복 관리성이 정서성과 부모의 애정·수용적 양육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학문성이 의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큰 편이었다.

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취학 전 아동의 성격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인구통계적 변인이 아동의 의복태도와 색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있었다. 연구대상자는 제주도내의 만 5세 유치원 아동 360명과 그들의 부모 360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자녀의 양육태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직업이 있는 어머니는 비취업주부보다 애정·수용적 양육태도가 더 높았다. 취학 전 여자 아동은 남자 아동보다 의복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이었으며, 의복태도는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성별과 선호색 및 혐오색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는데, 남아는 파랑, 초록, 남색을 여아에 비해 더 선호하였고, 여아는 분홍과 노랑을 남아보다 더 선호하였다. 남아는 분홍, 흰색, 노랑을 여아보다 싫

어하였고, 여아는 검정과 파랑을 남아보다 싫어하였다. 성별과 의복 색 선호와는 유의한 관계가 있어서, 남아는 여아보다 파랑, 빨강, 초록, 남색 의복을 선호하였으며, 여아는 남아보다 분홍, 노랑, 주황색 의복을 더 선호하였다. 또한 남아는 파랑, 여아는 분홍을 가장 선호하는 의복 색으로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아동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은 빨강이었고, 검정은 매우 싫어하였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색 선호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셋째, 취학 전 아동의 의복 색을 통한 성 구분 능력은 모든 색에서 성인들의 전통적인 태도와 일치하여, 분홍, 빨강, 노랑은 여성의 색으로, 남색, 파랑, 초록은 남성의 색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아동의 성격특성 중 학문성은 남녀 모두 의복 흥미성과 정적인 관계를 지녔고, 사회성 및 가족성은 의복 관리성 및 의복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성격을 지닐수록 아동은 의복 흥미가 높고, 더 바람직한 의복태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성의 성격특성과 선호하는 의복 색은 유의한 관계가 있어 사회성이 낮은 아동은 빨강, 파랑색 의복을 좋아하였고 사회성이 높은 아동은 주황, 보라색 의복을 좋아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복 색 선호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여섯째, 남아의 경우 의복 흥미성에는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학문성의 성격특성이 동시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R^2=.076$), 어머니가 비취업주부이면서 아동의 학문성이 높을수록 의복 흥미성이 높았다. 남아의 관리성에는 정서성과 애정·수용적 양육태도가 동시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R^2=.176$), 정서성이 높으면서 애정·수용적인 양육을 받을수록 의복 관리성이 높았다. 또한 남아의 자립성에 부모의 민주·자율-권위·통제적 양육태도가 영향을 주어 권위·통제적 양육을 받을수록 의복 자립성이 높았다. 남아의 학문성은 동조성과 만족도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가족성은 의

복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주어 긍정적인 가족생활을 할수록 개방적인 의복 성역할 태도를 나타냈다. 여아의 경우 학문성은 의복 흥미성에, 사회성은 관리성에, 정서성은 의복 자립성에, 가족성은 의복 만족도에 낮은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 모두 학문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의복 흥미성이 높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대상자가 제주도내의 제한된 지역의 아동이었다는 점과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의복태도의 타당도를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의복행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좀 더 폭 넓은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연령 변화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비교하며, 지역별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숙(1980).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위와 사회계층간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강혜원(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논문, 11, 349-376.
- _____(1995). 의상사회심리학. 개정판, 서울: 교문사, pp.201-220.
- 고은기(1987).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 권향원(1988). 아동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김민자(1973). 취학 전 아동의 의복기호와 의복행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병숙(1981). 취학 전 아동의 미적 태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수희(1986). 아동지각심리에 작용되는 색채 및 문양의 기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정립(1989). 미취학아동의 색채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희, 남기덕, 박영호, 송명자, 송인성, 심웅철, 윤가현, 윤영화, 이철원, 이현진(1998).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pp.244-266.
- 김현택, 박동건, 성한기, 유태용, 이순복, 이영호, 진영선, 한광희, 황상민(1998). 심리학. 서울: 학지사, pp.215-233.
- 박정애(1984).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의복선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찬부, 현은강(1984). 아동의 의복행동과 인성간의 관계연구(II): 국민학교 5·6학년 여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10, 593-610.
- 변정은, 이명희(1989).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7(1), 29-38.
- 송인섭(1997). 유아성격검사. 서울: 학지심리검사연구소.
- _____(1997). 유아성격검사법 요강. 서울: 학지심리검사연구소.
- 신혜봉, 임숙자(1987). 취학 전 아동의 의복디자인 선호성과 사려성-충동성 성향과의 상관 연구. 한국외류학회지, 11(3), 89-99.
- 유경숙, 이명희(1997). 성역할 정체감, 성 및 연령에 따른 의복 무늬 선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명미(1988). 아동의 사회성 및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명희(1987a). 성역할을 중심으로 한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와와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25, 209-227.

- _____(1987b).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4, 5,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1(3), 1-11.
- _____(1989). 학령기 아동의 의복색 선호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3, 63-81.
- _____(1999).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46, 143-158.
- 이미연(1989). 국민학교 1, 2, 3학년 아동의 의복행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연관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인자(1997). 복식사회심리학. 수학사. pp.292-299.
- 이정순(1973). 의생활과 색채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논문집*, 7, 159-166.
- 장숙경(1990). 의복행동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정선숙(1992). 아동의 성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주연희(1991). 아동의 성개념 발달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점순(1988). 국민학교 학생의 색채선호 및 의복 색 기호와 인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종혜(1980). 부모의 인성 및 교육태도와 학령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Compton, N. H. (1962). Personal attributes of color and design preferences in clothing preference in clothing fabrics. *Journal of Psychology*, 54(1), 191-195.
- Davis, L. L. (1985). Sex, gender identity, and behavior concerning sex-related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2), 20-24.
- Ford, I. M., & Drake, M. F. (1978). Color value preferences for clothing and personality factors. *ACPTC combined Proceedings of College Professors of Textiles and Clothing*, p.97.
- Hurlock, E. B. (1978). *Child Development*. Tokyo: McGraw-Hill Kogakusha, pp.406-407, 537.
- Kaiser, S. 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pp.100-101.
- Kohlberg, L. A. (1966). A cognitive 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 in Maccoby, E. E. 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주연희(1991). 아동의 성개념 발달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재인용.
- Munzert, A. W. (1980). Analyze Your Personality through Color. New York: Monarch Press, cited by Radeloff, D. J. (1991). Psychological types, color attributes, and color preferences of clothing, textiles, and design stud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59-67.
- Picariello, M. L., Greenberg, D. N., & Pillemer, D. B. (1990). Children's sex-related stereotyping of colors. *Child Development*, 61, 1453-1460.
- Radeloff, D. J. (1991). Psychological types, color attributes, and color preferences of clothing, textiles, and design stud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59-67.
- Ryan, M. S. (1966).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 Y.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p.194.